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http://www.emerics.org/>

2018. 09. 06. | 중남미

「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화폐개혁 배경과 의미

작성 □김효은 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구미팀)

- 8월 20일,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속되는 경제난과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화폐의 십만 분의 일로 액면가를 변경(디노미네이션)한 신 화폐를 발행함.
- 최고 액면가가 500볼리바르권인 신 화폐 볼리바르 소베라노(Bs.S.)가 도입됨.
 - 이는 당분간 구 화폐인 볼리바르 푸에르테(Bs.F., 최대 100,000 볼리바르권)¹⁾와 통용될 예정이며, 1,000 Bs.F. 이하 화폐는 즉시 폐지됨.
 - 암호화폐 페트로(Petro)²⁾ 가치에 연동되는 신 화폐는 구 화폐 대비 95% 이상 평가 절하됨.
 - 1페트로로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1 배럴의 평균 수출 가격인 약 60달러인데 이를 3,600 Bs.S.로 고정함. 즉, 공식 환율이 달러당 60Bs.S.(6,000,000Bs.F.)로 화폐개혁 전 공식 환율인 250,000Bs.F. 기준으로 볼 때 약 96% 평가절하됨.³⁾
 - 화폐개혁은 연율 80,000%(2018년 7월 기준)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⁴⁾
 - 개혁 이전 월 최저임금은 5백만Bs.F.로 실질적인 구매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⁵⁾ 이에 정부는 화폐개혁과 동시에 최저임금을 3,000% 이상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함.
- 석유 의존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와 함께 차베스에 이은 마두로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가파른 물가 상승이 초래됨.
- 차베스 집권 이래 지속된 사회주의 형태의 경제정책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 부재가 경제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2000년대 초 차베스 집권기에 유가 상승에 힘입어 사회 복지 지출 및 식료품과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인상한 결과 2000~12년 사이 GDP 대비 정부부채가 2배 증가함.
 - 차베스 시기 자산 몰수와 국유화, 환율과 가격 통제를 시행하며 시장경제가 왜곡되었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입이 생산성 제고 및 산업 다각화에 재투자되지 않음.⁶⁾
 - 2014년부터 유가 하락으로 정부 재정 수입이 급감하고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자 마두로 정부는

1) 2년 전에는 100 볼리바르권이 가장 큰 단위였음.

2) 2018년 2월 베네수엘라 정부가 도입한 석유 자원 담보 암호화폐

3) 개혁 이전 암시장에서의 실질환율은 1달러당 6백만 구 볼리바르 수준으로 알려짐.

4) 야당 주도의 베네수엘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물가가 평균 26일 만에 2배씩 상승하고 있음. 국회 추산 물가상승률은 2018년 4월 13,800%, 5월 24,600%, 6월 46,000%, 7월 83,000%이며 IMF는 올해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이 1,000,00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베네수엘라 정부와 중앙은행은 2015년 이래 공식적인 경제 지표를 발표하지 않음.

5) 개혁 이전 커피 1잔 가격은 250만Bs.F., 휴지 1롤 가격은 260만Bs.F. 등이었음.

6) 생필품과 식료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 실시로 국내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2003년부터 정부 운영 환전기관에서만 달러를 교환할 수 있도록 외환 거래를 통제하면서 지하 경제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함.

통화 증발과 수입 통제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함.⁷⁾

- 정부의 수입 통제 조치는 심각한 식료품, 생필품, 의약품 부족 현상을 야기했으며, 대규모 난민사태를 초래함.⁸⁾
- 생산 부진으로 인해 최근의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 수입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임.⁹⁾
-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은 2000년 일산 290만 배럴 수준이었으나 2018년 7월 기준 일산 120만 배럴(올해 1월 대비 22% 감소)로 급감함.
- 국영석유회사의 경영실패와 투자 부진, 인프라 노후화, 전문 인력 유출, 자금 조달 채널 단절, 부패 등이 석유 개발 및 생산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임.¹⁰⁾

□ 신 화폐 도입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과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며, 새로운 정책이 실질적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바는 극히 제한적일 것임.

- 신 화폐 발행은 일시적으로는 현금거래나 회계 장부 기록을 용이하게 하는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 신 화폐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할 페트로 자체의 가치가 유가변동에 취약하고 미국의 금융제재¹¹⁾와 베네수엘라 정부의 낮은 대외 신용도는 국제적 거래 활성화에 제약이 됨.
-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신규 투자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수적이나 베네수엘라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고, 국내 투자 여력도 부족함.
- 생산이 재개되지 않는 한 외환 및 물자 부족이 지속될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과 연료 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¹²⁾ **EMERiCs**

참고자료

BBC Mundo, The Newyork Times, Financial Times, Latin America Advisor 등

7) 베네수엘라 정부의 총 외채는 채권 640억 달러, 중국과 러시아 차관 200억 달러, IDB 등 다자기구 차관 50억 달러 및 그 외 수입업자와 석유 부문 서비스 업체 채무 등 1,4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됨.

8) 심각한 경제난으로 2014년 이래 전체 국민의 약 7%에 달하는 230만명의 국민이 베네수엘라를 떠남.

9) 베네수엘라는 세계 석유 매장량 1위국으로, 2017년 기준 3,01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됨.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가 국가 경제 및 정부 재정의 기반임.

10) 에너지 부문 경력이 전무한 군장성이 국영석유회사(PDVSA) 사장과 에너지부처 장관에 임명됨.

11) 미국은 2018년 3월 페트로에 대한 경제제재를 추가적으로 실시함.

12) 마두로 대통령은 9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현행 5,000,000Bs.F.서 60배(실질환율 기준으로는 약 34배) 인상한 1,800Bs.S.로 인상한다고 밝힘. 또한 자동차를 국가에 등록하고 신분증(carnet de la patria)을 발급받은 국민에게만 연료 보조금을 지급을 지속하고 그 외에는 국제가격으로 인상에 공급한다는 계획임.